

서울대, 신속검사 전 구성원 확대 2학기 '대면수업' 정상화 추진

‘검사 원하는 구성원’ 대상 확대
코로나 검사 위한 예약 웹 개발 중
채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2시간

서울대가 10여 일 전부터 학내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 검사 대상을 전 구성원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서울대 전 구성원은 누구나 자연대 강의실현연구동 주차장에 설치된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내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자진단검사를 6일부터 ‘검사를 원하는 서울대 전 구성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4일 오후 학내 서신을 통해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역 시스템 구축 노력의 하나로 시범 시행한 코로나19 분자 진단검사 사업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검사 대상을 오는 6일부터 검사를 원하는 서울대 전 구성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6일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구성원은 누구나 서울대 자연

대 강의실현연구동(25-1)동 주차장에 설치된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윈스톱 신속진단검사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현재 해당 검사를 위한 예약 웹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정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교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부터 자연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시범 실시했다.

이 검사는 검체 채취부터 분자 진단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처리해 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통보된다. 기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를 알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서울대는 검체 확인 시설을 검체 채취소 바로 옆에 뒤 검체를 외부 시설로 옮기는 시간 등을 단축했다.

학내 검사소에는 체온 측정과 문진 표 작성 부스, 검체 채취소 3곳, RNA

모듈, PCR 모듈 컨테이너, 양성 판정이 나온 검사자들을 위한 격리 부스 등이 설치됐다.

서울대는 다음 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부총장은 이날 서신에서 “다음 학기부터 교육·연구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면 수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로 지혜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대면 활동을 조금씩 정상화하고, 특히 실험·실습과 토론 등 대면 활동이 핵심적인 수업의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권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20일 코로나19를 직접 겪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SNU 토크 콘서트’를 열고 코로나19 경험담을 나눈다. 여 부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며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적, 심리적 피로감에 대해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키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추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서울과기대, AI 신기술 인재 10만명 키운다

대학 간 협력... 102억 지원받아
전남대 등 6곳과 컨소시엄 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AI) 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반영한 신규 과제로,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서울과기대는 ▲전남대(주관대학)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서울과기대가 속한 컨소시엄은 올해 총 102억원을 지원받아



서울과기대가 3일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인공지능(AI) 분야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인공지능응용학과 수업 장면. /서울과기대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과기대는 이를 위해 창의융합대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를 신설한다. 창의융합대학은 정부의 미래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한 인공지능응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루어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의 단과대학이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8대 신산업 인재 10만명 양성

7개 대학 연합체에 총 816억 지원받아

건국대학교가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국대는 ‘한국판 뉴딜’로 8대 신산업 분야의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리더로 앞장서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실감미디어(주관대학 건국대) ▲인공지능(주관대학 전남대) ▲빅데이터(주관대학 서울대) ▲차세대반도체(주관대학 서울대) ▲미래 자동차(주관대학 국민대) ▲바이오헬스(주관대학 단국대) ▲지능형로봇(주관대학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에너지 신산업(주관대학 고려대) 등 총 8개 신산업 분야에서 1개씩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고 대학끼리 공유 대학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1개

연합체는 7개 대학으로 구성됐고 각 연합체는 올해 102억원씩 총 816억원을 지원받는다.

건국대는 실감미디어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및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감미디어 분야의 기본 축인 실감미디어 기술, 실감미디어 콘텐츠 및 휴먼디자인 교육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및 창업 교육을 기본 제공하는 특화된 과정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경희사이버대 교육콘텐츠 제작 모습.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학원, 2학기 신·편입생 모집

10일 부터 내달 14일까지 접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문화예술경영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등이다.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로 진행된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대학원은 개원 초기부터 체계적인 논문지도를 통해 역량있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8~2020년 기준 논문수

114편, 졸업생 수 대비 논문 배출 비율이 64%로 타 사이버대학원보다 높다.

대학원생이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 서문 작성, 공개 발표 등 체계적 수업·지도 체계와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학기 전공별로 논문 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세미나’, ‘논문 작성법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연구 발표회, 공개 발표회, 논문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문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각 전공별 교수 중심으로 세심한 학생지도와 대학원 본부 및 행정 분야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은 언택트와 온택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세미나 및 문화학습 등 교육·연구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한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토록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수업 지원 제도 및 시스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동국대, 개교 115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 개교 115주년 기념식이 4일 동국대 분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연구자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학

생 50명 남짓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우리대학은 어느덧 35만 명의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 발돋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주요 내빈 및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인공지능융합학부 등 신설

내년 수시·정시부터 모집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융합학부와 바이오융합공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한다. 신입생은 올해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부터 모집하며, 정원은 각각 100명과 30명이다.

5일 삼육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과 구조조정 개편안을 결의했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기존 지능정보 융합학부를 개편한 학과다.

인공지능 중심의 공학적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전공으로 기술경영전공(경영공학사)과 인공지능공학전공(공학사)을 운영한다.

바이오융합공학과(공학사)는 미래 신산업 트렌드인 바이오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 진단, 헬스케어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바이오융합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현진 기자